

# 朝鮮時代 敎訓書에 나타난 父母役割에 관한 研究

— 子女訓育을 中心으로 —

## A Study on Parenting in Books for Domestic Life Education of the Chosen Dynasty Period

— Focusing on Parental Role of Disciplining Children —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학과  
박사과정 신 양 재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Yang Jai Shin

### 〈 목 차 〉

I. 序 論

III. 結 論

II. 朝鮮時代 敎訓書 分析

參考文獻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arent's social cognition about disciplines in the context of Korean culture by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ories of discipline and conceptions of parental role in disciplining children presented in the books for domestic life education of the Chosen Dynasty period.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historical method and the literatures of analysis are Naihun, Gyubeomseonyoung, Sasojol, Jongbo-Salimgyoungjai, Hahagjinam. According to analysis, the disciplinary theory for children had the basis on the ideas that children learned through everyday experiences and observation of surrounding events, and that critical periods of learning were at the early childhood. And parents assumed the responsibility for disciplining their children. Also the Chosen Dynasty period had the conceptions that parents had rigorous quality as well as warm-hearted toward their children and taught honor, modesty, plainness and industry.

## I. 序 論

### 1. 問題提起

아동발달 연구에 있어서 오랜동안 매우 중요시 해 온 주제는 발달에 있어서 환경이 갖는 역할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중심자로 여겨왔고, 가족은 일차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Maccoby, 1984). 대개의 경우 부모를 아동의 행동, 정서, 성격, 인지 발달에 주된 因果의 動因으로서 보았고, 따라서 기본 연구전략은, 부모나 그의 행동에서 變移를 보이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차이를 아동변수와 관련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Holden & Edwards, 1989).

그런데 최근 부모행동연구에 대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社會認知的 接近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부모 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부모자녀간 행동적 교환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들어 인지가 부모행동 수행을 중재한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Goodnow, 1988 ; Miller, 1988 ; Sigel 1985 ; Mills & Rubin, 1990). 이러한 사회인지적 접근은 아동연구에 새로운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는데, 그중 하나가 기존의 자녀양육 측정척도에 관한 새로운 해석 및 방향 제시를 들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해온 측정도구들은 양육태도를 명확하게 특성화하지 않은 채로, 養育方式·信念·價値 등을 모두 양육태도로 처리하는 등,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양이나 주제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상 접근에 한계를 노출시킨 것이다(Holden & Edwards, 1989).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Holden 등(1989)은 부모행동 연구에 있어서 下位領域別로 分化된 社會認知的 接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5개의 사회인지 하위영역을 제안하였다. 즉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에 관해 일반적으로 認知的 部門, 評價의 部門 그리고 行動의 部門으로 분류

한다는 개념구성을 받아들여, 이 세 영역에다 價値와 自己-知覺을 부가하여 5개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인지에 대한 연구를 태도, 신념, 행동적 의도, 자기지각, 가치 등으로 분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Holden & Edwards, 1989).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본 때, 부모행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회인지 영역을 특정화하여 이를 자녀양육이나 훈육행동과 연관시키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전술한 5개 영역 가운데 특히 信念은 진실이라고 여기는 지식이나 관념들로서, 대상에 대한 情意的 評價인 態度는 이 신념과 함수관계가 있고, 특정 방법으로 반응하려는 행동적 의도 역시 신념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Holden & Edward, 1989). 또한 기존 도식이 注意過程, 略號化, 範疇化, 記憶, 推論과 같은 인지과정에 영향을 준다(Fiske & Tayler, 1984)는 정보처리적 관점을 부모행동에 적용한 몇몇 연구들을 보면, 실제 아동의 모습이 아동에 대한 지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의 既存 表象과 일치하는 예에 선택적으로 더 주목하는 경향을 띠며(D'Alessio, 1990), 또한 자녀나 자녀발달에 관한 도식인 부모의 신념은 부모의 歸因過程을 특정 방향으로 경향화시키며(Dix et al., 1989), 아울러 자녀와의 상호작용상황에서 그들의 반응행동에 영향을 준다(Mills & Rubin, 1990)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 신념에 관한 규명은 부모행동 연구 있어서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력이나 훈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그의 실제 훈육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이 연관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보면 걸음마기의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통제방식에 관한 자녀양육신념은 실제로 관찰된 사회화방식과 상당히 일치하며(Kochanska, Kuczynski & Radke-Yarrow, 1989), 2-3년 이후의 중단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재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기에 형성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식이나 부모의활절학은 지속적으로 부모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규제자로서 기능한다(Kochanska, 1990)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Simon, Beaman, Conger &

Chao, 1993)에서도 훈육방법에 관한 신념이 통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모의 신념은 부모행동이나 아동에 대한 그 사회의 문화적 지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Shweder, 1982; Goodnow, 1985, 1988; D'Alessio, 1990; Harkness et al, 1992). 文化는 情報와 信號, 權利와 義務, 役割과 制度 등으로 구성된 우리의 행동 환경을 규정해 주는 實在이라고 하겠는데, 文化軸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대상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해 주며, 대상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정해주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인간의 情報處理過程에 관여한다(D'Andrade, 1981)고 한다. 따라서 문화는 부모들 자신 및 자녀 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에 영향을 주며, 이는 몇몇 문화간 비교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Nino, 1979, 1988; Samaroff & Feil, 1985; Goodnow, 1988). 따라서 부모의 신념 연구에 있어서는 문화적 맥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더군다나 문화가 역사적 전개과정 안에서 유지, 변형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歷史的 接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부모 신념 연구는 우선 역사적 접근에 의한 韓國 傳統社會에 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 연구(愼良宰, 1994a; 1994b)에 이어 朝鮮時代의 兒童敎育을 해명해 보고자, 당시에 저술된 敎訓서를 분석하려고 한다.

조선시대의 敎訓서는 주로 개인의 수양이나 가정생활에 지침이 되는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그러므로 이들 敎訓서는 자녀에게 개인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습관이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려는 훈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나, 그 훈육에 있어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敎訓서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이러한 문헌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 문헌만을 분석하였거나(柳點淑, 1987; 李貞德·宋洵, 1993; 孫直銖, 1993; 洪달아기, 1994), 또는 여러 문헌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母性의 役割만을 주로 다루었다는

한계로 인하여(孫直銖, 1982; 金玉姬, 1985), 자녀훈육에 있어서 부모의 양측 모두를 포괄한 연구성과를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경험하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다룸으로 인하여(禹英姬, 1989; 柳點淑, 1991),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훈육역할 수행 측면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의 敎訓書 여러 편을 대상으로 하여, 훈육방법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자녀훈육시 부성과 모성 각각에 대한 역할기대의 내용 모두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조선시대 敎訓서에서 나타난 敎育知識은 무엇인가? 둘째, 조선시대의 敎訓서에 나타난 父性役割概念은 무엇인가? 셋째, 조선시대의 敎訓서에 나타난 母性役割概念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도출될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자녀훈육에 대한 신념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인지과정의 집단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2. 研究方法

진술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文獻研究를 하고자 한다. 분석대상문헌은 기존연구에서 자녀교육이나 양육의 측면에서 현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규명된 문헌 중에서, 문화 내부인의 관점을 중시한다는 입장(金泳燦, 1982)에 기반하여 우선 문헌의 저자나 편자가 韓國人인 文獻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술의 성격이 가정생활에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과 아울러 특히 자녀훈육에 대한 부모행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문헌에서 부성과 모성에 관한 내용의 비중을 맞추어 內訓, 閨範, 選英, 增補山林經濟(家政篇), 土小節, 下學指南 등을 본 연구의 분석문헌으로 삼았다.

內訓은 成宗 6년에 昭惠王后 韓氏가 宮中 妃嬪을 비롯한 일반 婦女들을 위해 撰한 여성敎訓서로서 오늘날까지 전해 오는 여성敎訓서 중 가장 오래된 책

이다. 내용은 言行·孝親·婚禮·夫婦·母儀·敦睦·廉儉 등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閩範選英의 저자는 李衡祥인데 이 책 跋文에 의하면 肅宗 20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修身·讀書·孝親·忠君·友愛·敦睦·齊家·教子·慎交·恤憐·祭祀·墳墓·幹僕·雜術·安分·懲忿·宗儉·積善 등 18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閩範選英은 私家の家訓用으로 저술된 것으로서, 저자 자신의 子婦와 자녀에게 훈계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閩房教訓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增補山林經濟는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英祖42년에 柳重臨·朴世堂·徐有九가 增補한 것이다. 산림경제는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과학 지식을 수록한 것으로서 생활지도서이자 과학서라고 할 수 있는데,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닌 저술이다. 그 내용은 卜居·治農·種樹·養花·牧養·攝生·治膳·救荒·家政·救急·四時藥要·雜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土小節은 英祖 때 實學者인 李德懋에 의해서 저술된 문헌으로, 저자는 인간의 인격완성을 위해서는 소소하고 세세한 일상의 행동에서부터 법도와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내용은 크게 土典·婦儀·童規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편은 다시 여러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土典은 전통사회의 남성들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性行·言語·服飾·動止·謹身·教習·人倫·交接·御下·事物 등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婦儀는 전통사회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性行·言語·服飾·動止·教育·人倫·祭祀·事物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童規는 아동의 교육과 습관형성에 관한 것으로서 動止·教習·敬長·事物 등 4장으로 되어 있다. 下學指南은 安鼎福이 英祖 16년에 撰한 것으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우선 首卷에 日用篇을 두어 12支에 따라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 매 시간마다 해야 할 일과를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그 다음 上卷에는 讀書·爲學·心術 등 3편을, 下卷에는 威儀·正家·處己·接人·出處 등 5편을 두고 있다. 그리고는 이를 다시 총 70개의 장으로 분류하여 선비가 평생 동안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모든 분야에 대한 도리를 포괄적으로 집대성해 놓고 있

다.

그런데 이들 문헌들의 많은 내용중에서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관한 지침을 주로 담고 있는 편이나 章으로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편이나 章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된 장이나 편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內訓에서는 母儀章을, 閩範選英에서는 教子를, 增補山林經濟 家政篇에서는 訓子孫과 教女兒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土小節에서는 土典篇에서 御下와 婦儀篇에서 教育을 각각 분석했고, 下學指南은 正家 중에서 教養章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석대상 문헌에 관계된 학계에서 낸 번역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참조하여 原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분석대상 후에서 아동훈육과 관련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전술된 바와 같이 아동훈육이란 아동에게 개인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습관이나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부모행동이라고 보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각 장으로 부터 가려 낸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추출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보았다. ① 訓育知識: 여기서는 훈육과 관련된 판단의 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훈육시 학습에 대한 인식, 훈육표현방법에 대한 인식, 훈육 필요성과 주체에 대한 인식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규명하였다. ② 父性役割概念: 여기서는 자녀훈육에 대한 부성역할의 개념화를 말하는데, 이를 부성의 자질에 관한 내용인 父性性과 부성에 기대하는 훈육내용 등 두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③ 母性役割概念: 여기서는 자녀훈육에 대한 모성역할의 개념화를 말하며, 부성역할개념과 마찬가지로 모성의 자질에 관한 母性性과 모성에 기대하는 훈육내용 등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다른 규범서들을 참조하였다.

## II. 朝鮮時代 教訓書 分析

### 1. 訓育知識

조선시대 자녀훈육과 관련된 지식체계를 알아보고자 우선 분석대상 교훈서에서 훈육방법에 관한 부분을 추출하였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학습에 관한 지식, 표현방법에 관한 지식, 그리고 훈육 필요성과 훈육 주체에 대한 지식을 알아 보았다. 우선, 자녀훈육시에 진행되는 아동의 학습에 관한 지식을 살펴보면, 아동훈육방법이 다음과 같은 학습과정과 시기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㉑ 程子曰 古人生子能食能言而教之 是故小學之法以豫爲先 人之幼也 智慧有所主 當以格言至論日陳於前 盈耳充腹 久自安習<sup>1)</sup> (下學指南 正家第五 教養章)
- ㉒ 是故爲父祖者不必隨事教訓 而已亦當以好規模示諸子孫 使之學得於不知不覺之中可也 (增補山林經濟訓子孫)
- ㉓ 而已粵自幼穉 便當有漸染之道 尋常談語之間 每以故人行事之最於倫紀者 反復而詳說之 使耳熱心穿 如常時占談之聽(閩範選英 教子)

이들 자료로부터 우선 자녀교육에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인생 초기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과정에 관해서, ㉑의 자료에서는 자녀에게 格言과 至論을 반복해 주면 귀에 차고 배에 충만하여 안정된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고 있고, ㉒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반드시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마땅히 좋은 본보기를 자손에게 보여주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체득한다고 보고 있다. ㉓에서도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훌륭한 先人の 일을 반복해서 상세히 설명해주면 귀에 익고 마음에 통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부터 당시의 자녀훈육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日常化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교육을 통한 아

동의 행동형성은 일상화를 통한 반복에 의해서, 習性으로 자리잡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학습과정은 어떤 정해진 장소나 시간을 마련해서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의 행동적 본보기와 언어적 표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과정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小學을 분석한 李貞德·宋洵 연구(1993)와 聖學輯要를 분석한 洪달아기 연구(1994)에서 교육방법원리의 하나로 밝혀진 생활교육으로서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上述된 바와 같은 日常化를 학습과정으로 보는 견해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주변 인물을 아동의 학습과정에서 중요시 하게 된다.

- ㉔ 太姒教誨十子 自少及長 未嘗見邪僻之事(內訓 母儀章)
- ㉕ 孟子之少也 … 乃徙 舍學宮之旁 其嬉戲 乃設俎豆 揖讓進退 孟母曰 此真可以居子矣 遂居之(內訓 母儀章)
- ㉖ 孟子幼時 問東家殺猪何爲 母曰 欲啖汝 旣而悔曰 吾聞古有胎教 今適有知而欺之 是教之不信 乃買猪肉以食之(內訓 母儀章)
- ㉗ 曲禮曰 幼子常視母誼(下學指南 正家第五 教養章)

㉔에서는 太姒가 자식 열명을 가르칠 적에 자기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잠시 동안이라도 邪惡하고 偏僻된 것을 보이지 않았음을 예로 들고 있고, ㉕에서는 孟子 어머니가 孟子를 위해서 세 번 집을 옮긴 일화를 들고 있다. ㉖ 역시 孟子 어머니의 일화로서, 孟子 어렸을 때에 주인집(東家)에서 돼지 잡는 것을 보고 물었을 때에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빈말을 하였는데, 이를 후회하여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속인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不信을 가르친 것이 되었다고 하여, 곧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었다는 일화를 통해서 자녀에게 邪된 것을 잠시라도

1) 卍小節 重規篇 事物에는 '伊川先生曰 人之幼也 知思未有所主 便當以格言至論日陳於前 雖未曉知且當薰話 使盈耳充腹久自安習若固有之 雖以他言惑之不能入也' 로 되어 있어 자녀에게 格言과 至論을 반복하여 주면 귀에 배고 배에 가득차서 오랜 뒤에 저절로 버릇이 되어 본디부터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 하였다.

보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㉔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잠시라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아동의 지식 형성이 일상의 경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언행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전술된 바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직접적인 경험을 학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시대 동몽교육의 방법적 원리에 관한 柳點淑 연구(1992)에서의 모방의 원리, 士小節을 분석한 孫直銖 연구(1993)에서의 성장기 교육환경의 중요성, 小學을 분석한 李貞德·宋洵 연구(1993)에서의 모델제시를 통한 교육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학습 시기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는 ㉕에서 ㉗까지의 자료에 나타나 있다.

- ㉕ 若爲之不豫 意慮偏好生於內 衆口辨言鑠於外 欲其純全 不可得也<sup>3)</sup>(正家第吾教 養章)  
 ㉖ 若幼而不教至於既長 則習非放心教之甚難(增補山林經濟 訓子孫)  
 ㉗ 只爲未嘗爲子弟之事 則於其親已有物我不肯屈下 病根常在隨所居 而長至死只依舊(下學指南 教養章)  
 ㉘ 養之至成 雖悔已遲 (內訓 母儀章)

이들 ㉕와 ㉗까지에서는 인생 초기에 적절한 학습이 결여되었을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㉕는 미리 가르쳐서 예방하지 않으면 자란 후 偏僻된 邪慾이 안에서 생기고, 붓 사람의 말이 밖에서 유혹하게 되어서 제 아무리 순수하려 해도 될 수가 없다

는 것을 말하고 있고, ㉖에서는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상성해서 그릇 것에 익숙해지고 마음이 방방해져서 가르치기가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㉗에서도 일찍이 사제를 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이미이에 깨도 이미 남과 나 사이라는 생각이 생겨나 곱히기를 좋아 하지 않으며, 뿌리 깊은 나쁜 습관이 항상 사리잡혀 성장하여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그런 것이라 하고 있다. ㉘에서도 일찍부터 가르치는 작업을 게을리하면서 키르다가 아이가 자라게 되면 비록 뒤우진다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아동의 학습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장한 이후에 교정하기 어렵다는 決定的 時期 概念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러한 조선시대의 견해는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朱子學의 修養論과 認識論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朱熹는 모든 事物의 理의 總和인 太極을 완전하게 우리 인간안에 내재해 있는데 우리의 형체때문에 이 理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修養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太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居敬과 格物致知를 들고 있다(馮友蘭, 1977). 따라서 인식과정에 관한 이해는 大學의 '格物致知 致知在格物'의 해석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理가 物에 있고 知는 그 物에 있는 理를 窮究하는 것이며 窮究方法은 物을 格하는 것이라 하여, 격물을 말하면서 궁리를 말하지 않은 것은 窮理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虛空을 움켜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추상적인 것을 탐구해야 하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士小節 童規篇 動止와 教習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① 故教子弟 必使之從遊醇謹雅飭之人 方不竟抵于不肖無狀

② 若自幼及壯 其所聞見無非不正之事與浮浪之人 則其或見正事見正人 反乃以爲駭異也

①은 자제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옳마진 사람과 함께해야 불肖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며, ②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상성한 때까지 듣고 보는 것이 옳동 不正한 일과 浮浪한 사람이라면 혹 옳은 일과 옳은 사람을 보더라도 도리어 해괴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 하여, 이들로 부터 자녀가 직접 대면하는 사람과 事象의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士小節 童規篇 事物에는 '若爲之不豫及乎稍長 私意偏好生於內 衆口辨言鑠於外欲其純完 不可得也'라 하여 미리 가르쳐서 예방하지 않으면 자란 후 偏僻된 私慾이 안에서 생기고 붓 사람의 말이 밖에서 유혹하게 되어서 제 아무리 순수하려 해도 될 수가 없디고 하여 유사한 의미가 나타나 있다.

로 格物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物을 날마다 格해야 한다는 경험적 방법을 인식방법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金忠烈, 1988).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경험에 의한 格物이 窮理에 이르게 하여 준다는 입장에서 볼 때, 아동이 겪는 일상의 경험과 주변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한편, 구체적인 훈육행동 표현 방법에 관한 내용들로 부터 당시의 훈육 지식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문제행동이 발생한 즉석에서 조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자료로 부터 추정해 볼 수 있다.

- ㉑ 子弟婢僕偶有一過 當即地戒責 勿留留中 或於他日 又作他過不可歷提前過 嗚呼督責也(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㉒ 子弟有過 循循勸戒 切勿時志怒(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㉓ 毋護其惡 一起輒撲(內訓 母儀章)
- ㉔ 唯諸兒有過 則不掩也(內訓 母儀章)

㉑에서는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즉석에서 경계하거나 꾸짖고 胸中에 간직하지 말며, 후일 다른 과오를 범했을 때에 이전의 과오를 열기하며 꾸짖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㉒에서도 절대로 때가 지나서 성을 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㉓에서도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이를 덮어 두지 말 것이며, 나쁜 비릇이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는 매질을 해서라도 즉시에 가르쳐야 할 것을, 그리고 ㉔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결코 그냥 넘어가지 말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로 부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발생한 즉시 일관되게 훈육해야 한다는 훈육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訓育時에 있어 언어 표현에 관한 지식은 다음의 자료로부터 추정해 볼 수 있다.

- ㉕ 子女弟姪婦妾輩 若有罪過隨其輕重 諄諄而戒 或切責之 雖至楚撻 須當嚴愛并至 不可出決絕之言(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㉖ 妻子雖有不如意 不可疾聲詈罵如婢僕 而輒出逐棄決

絕之語 恩既不孚而威亦不敷(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㉗ 卑幼有過 隨其輕重敦戒而嚴責之 不可疾聲厲色 煩言複語 顛倒錯亂 不惟恩威俱失 亦恐情義有傷(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㉘ 子弟有過 循循勸戒 切勿時志怒(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㉙ 或問御家之要 子曰家長毋出不忍聞之言 家衆毋作不敢言之說 則家道正矣(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㉚ 制暴怒 省煩言 治家御衆之先務(士小節 士典篇 御下)
- ㉛ 退溪先生子孫有過 則不爲峻責 警誨諄復俾自感悟(下學指南 正家第五 教養)
- ㉜ 有可誨責之事 則當積誠喻理期其感悟 不可擻臂曠目 大聲叱喝 以失其和也(增補山林經濟 訓子孫)

우선 훈육시의 구체적인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㉑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죄과의 경중에 따라 본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경계시키거나 호되게 꾸짖을 것이며, 여지없이 끊는 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㉒에서도 아내와 자식에게 비록 여의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婢僕에게 하듯이 큰 소리로 나무래서는 안되며, 쫓아버린다고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나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㉗에서는 그 過失의 輕重에 따라 은밀히 경계하거나 엄격히 꾸짖어야 하고, 거센 목소리에 노기면 얼굴로 중언부언하여 착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㉒, ㉑, ㉒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훈계하여 번다한 말을 생략하고, 차마 듣지 못할 말을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제안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하겠다. 같은 맥락으로, ㉘에서는 잘못이 있으면 혹독하게 꾸짖지 않고 깨우치고 가르쳐 주기를 거듭 반복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느껴서 깨닫게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고, ㉙에서도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부터 訓育時의 언어표현은 문제행동의 輕重을 헤아려 주고, 이를 차분하면서 단호하게 나타내고, 이러한 분명한 실명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언부언하는 등의 번다한 표현, 큰 소리로 나무래는 표현, 그리고 쫓아 버린다

든가 관계를 끊는다는 등의 과한 표현은 훈육시의 언어사용으로 부적합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訓育時的 體罰에 관한 견해도 역시 나타나 있다.

- ㉞ 雖至楚撻 須當嚴愛并至 (上小節 上典篇 御下)
- ㉟ 卑幼雖有過失 勿亂罵 勿散驅 散驅者不辨要害也 (上小節 上典篇 御下)
- ㊱ 兒童氣多好放縱嬉遊者 不可日加撻 以傷其性(增補山林經濟 訓子孫)
- ㊲ 夫人謙順自牧撫愛諸庶 不異己出 不喜笞扑 (上小節 婦儀篇 教育)
- ㊳ 毋護其惡 一起輒撲 (內訓 母儀章)

㉞에서는 비록 매를 때리더라도 위엄과 사랑을 병행할 것을 말하고 있고, ㉟에서는 아이에게 過失이 있더라도 함부로 꾸짖지 말고 마구 때려서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마구 때릴 경우 맞는 사람 몸의 중요한 부분을 식별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㊱에서는 매일 회초리를 대는 것은 그 아이의 성품을 상하게 한다는 견해를 볼 수 있고, ㊲는 程子 어머니에 관한 기술로서, 매때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매의 과용을 삼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㊳에서는 나쁜 버릇이 한번이라도 일어나면 때로써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훈육을 위해서는 매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 들을 종합해 볼 때 훈육시 과한 체벌 사용을 경계하되, 자녀훈육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교훈서에는 자녀훈육의 필요성과 훈육주체인 부모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 ㉜ 若愛而不教 教而不嚴 從惡如崩何所不爲 終成敗家之子 是父兄之過也(增補山林經濟 訓子孫)
- ㉝ 此蓋無也 愛爲之根 有愛無教 長遂不肖 … 子之不肖 實係於母 (內訓 母儀章)
- ㉞ 不教男子亡吾家 不教女子亡人家 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 (上小節 婦儀篇 教育)
- ㉟ 縱姑息之恩愛 胎無窮之患害 (上小節 婦儀篇 教育)
- ㊱ 男子自初生至于七八歲 出入行步言笑起居衣服飲食

節慎雍和培養德性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職 不亦重且大乎 (上小節 婦儀篇 教育)

㉜에서는 만약 사랑하면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거나 엄하지 않으면 싹터오르는 악을 따라 못하는 일이 없어 종국에는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식이 될 것이라 하여 자녀훈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㉝ 역시 자녀의 문제는 다른 탓이 아니라, 사랑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자식을 사랑할 줄만 알고 가르치지 않은 데서 어질지 못한 자식이 자라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㉞에서는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며, 딸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㉟에서도 姑息의 인 恩愛만을 베풀면 부궁한 患害를 끼치게 된다고 하여 자녀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㉜, ㉝, ㉞, ㉟에서 직접한 자녀교육을 못하여 자식이 불肖하게 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 아동훈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부모 책임에 대한 논리적 기초는 전통사회의 儒家 經典 중의 하나인 易經의 家人象辭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즉 家人象辭에는 '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天地之大義也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 父父子子兄弟弟夫夫婦婦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라 하여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형은 형의 도리를 다하고 아우는 아우의 도리를 다할 때 家道는 정립된다고 하였다. 즉, 이는 윤리관계라는 것은 橫적인 것으로 피차의 의무를 대등하게 요구함(金忠烈, 1988)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茶山의 家庭教育에 관한 池英淑의 研究(1989)에서도 부모 역할에 대해 義·慈를 합한 의미의 慈를 선정함으로써 하여 자녀 역할인 孝에 대한 對待倫理體系가 확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慈가 없이는 孝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慈를 의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였고, 慈는 자연발생적인 사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깨닫도록 하는 교육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上小節 童規篇에 '其父母溺愛不教以至見欺 不惟其子之不孝 蓋亦父母之不慈'라 하여 아

이적에 그 부모가 사랑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아 속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자식만이 不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훈육의 필요성과 부모의 責任은 조선시대 당시에 당연한 훈육지식으로 아동 훈육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父母役割概念

자녀훈육시의 부모역할에 관한 조선시대의 개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교훈서 중에서 남성 교육용으로 저술된 문헌인 士小節의 士典, 下學指南, 增補山林經濟를 중심으로 부성역할개념을 분석하였다. 그다음에는 여성 교육용으로 저술된 內訓, 士小節의 婦儀, 閨範選英을 중심으로 모성역할개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父性에 관한 내용은 <표 1>과 같고,

<표 1> 父性役割概念

分析事例	父性性	訓育內容
㉑ 太嚴則得子離 太愛則點子肆 爲人親之道 嚴與愛之間乎	嚴與愛之間	
㉒ 子女弟姪婦妾輩 若有罪過隨其輕重 諄諄面戒 或切責之 雖至楚撻 須當嚴愛并至 不可出決之言	嚴愛并至	
㉓ 妻子雖有不如意 不可疾聲詈罵如婢僕 而輒出逐棄決絕之語 恩既不孕而威亦不敷	恩·威	
㉔ 逢人 誇張我妻子之才能 與暴揚我妻子之過失 其事雖不同 反其常則一也 以其溺愛而辟惡也	(溺愛) (辟惡)	
㉕ 家人不可偏示愛憎 … 故爲家長者 公明均正可以齊家	公明均正	
㉖ 家長厲怒 妻孥爲之蕪心 故操家枋者 務積和順以導家衆 是謂吉祥	和順	
㉗ 卑幼有過 隨其輕重敦戒而嚴責之 不可疾聲厲色 煩言複語 顛倒錯亂 不惟恩威俱失 亦恐情義有傷	恩·威·情·義	
㉘ 愛子教之 以義方 弗納於邪驕奢淫佚所自邪也	義	(邪·驕·奢·淫佚)
㉙ 教子有五 導其性 廣其志 養其才 鼓其氣 攻其病 廢一不可		其性·其志·其才 其氣·(其病)
㉚ 教小兒先要安詳恭敬		安詳·恭敬
㉛ 退溪先生子孫有過 則不爲峻責 警誨諄復俾自感悟 … 右言父子主恩	恩	
㉜ 若愛而不教 教而不嚴 從惡如崩何所不爲 終成敗家之子 是父兒之過也	嚴	
㉝ 家內所聞見者 無非禮法之說 古今之事簡編筆墨之外無他雜技 則兒輩亦無外馳畔學之患矣		(非禮法之說)
㉞ 凡子侄切禁間漫出入 亦不許任意交游眼外之事在當深察		(間漫出入) (任意交游)
㉟ 生兒稍長 不教儉朴則必奢華 不教辛勤則必遊惰 不教忍耐則必忿爭 不教謙恭則必倨傲 出此入彼自然之理也		儉朴(奢華)·辛勤(遊惰) 忍耐(忿爭)·謙恭(倨傲)
㊱ 其愛之教之當均一 不可有輕重厚薄也	均一	
㊲ 有可誨責之事 則當積誠喻理期其感悟 不可攘臂噴目大聲叱喝以失其和也	和	

1. ㉑에서 ㉒까지는 士小節 士典篇 御下, ㉓에서 ㉔까지는 下學指南 教養, ㉕에서 ㉖까지는 增補山林經濟 訓子孫에서 추출된 자료임

2. 괄호로 제시된 항목은 禁止나 不可의 부정적 의미로 쓰여진 내용을 나타냄

〈표 2〉 母性役割概念

分析事例	母性性	調育內容
㉑ 而申國夫人性嚴有法 雖甚愛公 然教公事事循蹈規矩	嚴·有法	
㉒ 齊義繼母者 … 王美其義 高其行皆教	義	
㉓ 魏芒慈母者 … 慈母以禮義之漸 率導八子	禮義	
㉔ 齊相田稷子 … 王大賞其母之義	義	
㉕ 伊川先生侯夫人 仁恕寬厚 撫愛諸庶 不異己出 … 治家有法 不嚴而整 … 唯諸兒有過 則不掩也	仁·恕·寬·厚 愛·不嚴而整	
㉖ 夫人謙順自牧撫愛諸庶 不喜笞撻	謙·順·牧·愛	
㉗ 教子女 先禁貪食		貪食
㉘ 然女子之婉婉聽從灑掃應對紡織裁縫烹飪調劑專憑母教 其爲父道不過時取詩書圖史 道說識微而已		婉婉·聽從·灑掃 應對·紡織·裁縫 烹飪·調劑
㉙ 男子自初生至于七八歲 出入行步言笑起居衣服飲食節儉雍和培養德性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職 不亦重且大乎		出入·行步·言笑 起居·衣服·飲食 節·儉·雍和·德性
㉚ 幼子女 不使之櫛沐盥頰 鼻涕日移蠅虱累累 亦非婦人精潔之德也	精潔	櫛·沐·盥頰
㉛ 且以寬裕慈惠溫良恭儉之德 導迪其動靜 或有輕言善謔悖亂淫褻者 亦痛責而呵禁之 使傲慢之氣 不該於身體 非僻之言 不掛於口唇 則此所謂做人樣子	寬裕·慈惠 溫良·恭儉	(輕言·善謔·悖亂·淫褻·傲慢·僻之言)
㉜ 其稍長有知識之時 便教以性氣和平言語柔順 一切紡績裁縫治餼等事 皆令學得		性氣和平·言語柔順 紡績·裁縫·治餼

1. ㉑에서 ㉚까지: 內調 母儀章에서, ㉘에서 ㉚까지: 上小節 婦儀篇 教育에서, ㉛: 閔範邁英 教子에서  
 ㉜: 增補山林經濟 教女兒에서 추출된 자료임.
2. 관호로 제시된 항목은 禁止나 不可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여진 내용을 나타냄.

母性에 관한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되었다.

먼저 자녀훈육에 있어서 기대되는 父性性과 母性性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父性性으로는, ㉑와 ㉒의 자료로 부터 嚴과 愛의 병행음, ㉓로 부터 恩惠와 威嚴을, ㉔로 부터 溺愛와 惡(미움)에 대한 경계음, ㉕로 부터 公明正大음, ㉖로 부터 和順함음, ㉗로부터 恩惠, 威嚴, 人情, 義理음, ㉘로부터 義로움을, ㉙로부터 恩惠를 ㉚로부터 嚴함음, ㉛로부터 均等음, ㉜로부터 和平 등음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엄, 의리, 의로움을 갖춘 공명정대한 父性이면서 은혜롭고, 인정있는 父性이 바로 嚴과 愛가 병행된 父性이며, 이것은 和順한 기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표 2〉와 같이 母性性으로 ㉑에서는 嚴格과 法道를, ㉒에서는 義로움을, ㉓에서는 禮와 義를, ㉔에서는 義로움을, ㉕에서는 仁慈, 어짐, 寬大, 德이 부디음, 法度, 秩序를, ㉖에서는 謙遜, 柔順, 自制, 愛情을, ㉗에서는 精潔을, ㉘에서는 寬裕, 慈惠, 溫良, 恭遜, 儉素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母性에 대하여 父性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에 있어서 의로움과 엄격한 일관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仁慈, 厚德, 寬裕, 慈惠, 溫良, 恭遜 등 애정적인 면이 기대되었나를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된 父性에 대한 기대와 일면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면에서는 약간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즉, 母性에게 기대되는 것은 자녀훈육에 일관성

이 있으면서도, 정서적 측면에서 자녀를 지지해줄 수 있는 특성들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한편 자녀훈육시에 父性에 기대하였던 훈육내용은 <표 1>의 자료 ㉒, ㉓, ㉔, ㉕, ㉖, ㉗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㉓에서는 일반적인 지침을 말해주고 있다. 즉 후천적 혹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나면 서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性), 마음이 지향하는 곳(志),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이나 능력(才), 심신의 근원이 되는 활동력(氣) 등을 이끌고 키워주며, 질병·근심·굶어질 종지 않은 비릇을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은 바르지 못한 것(邪) 즉 驕慢(驕), 奢侈(奢), 放蕩(淫佚)에 물들지 않도록 하게 하고(㉒), 行動舉止에서 찬찬하고 자세한 것(安詳)과 恭敬을 가르치고(㉔), 예법 아닌 것을 말하는 것 멀리 하게 하고(㉕), 출입이나 교제에서 節度(㉖)와 儉素, 勤勉, 忍耐, 謙遜(㉗)을 가르친

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성에 기대한 자녀훈육 내용은 <표 2>의 자료 ㉘, ㉙, ㉚, ㉛, ㉜ 등에서 알 수 있다. ㉘와 ㉜에서 음식 탐하는 것을 급하게 하는 것과, 빗질하고 목욕하고 세수하는 일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식사나 청결에 관한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모성에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㉙에서 경솔하게 말하는 것, 시끄러움, 도리에 벗어나는 것, 방탕하고 무람없는 행동, 오만, 바르지 못한 말 등을 금지하게 했다.

부성과 모성 양편 모두에게 기대된 자녀훈육내용은 전술된 바와 같이 朱子學에서의 修養方法의 하나인 居敬에 근거하고 있다(馮友蘭, 1977)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행할 행동종목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의 대표적 아동교육 條目인 九容<sup>4)</sup>과 九思<sup>5)</sup>를 그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아동교

4) 朝鮮時代 初學敎材로 사용되었다(丁淳睦, 1985)는 啓蒙篇에는 '收斂身心 莫切於九容 所謂九容者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鬢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이라 하여 몸과 마음을 收斂하는 데 있어서 九容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각각의 세목에 관한 내용은 李珣의 擊蒙要訣 持身章에서 파악되는데, 발 모양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不輕擧也로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손 모양을 공손히 한다는 것은 手無慢弛 無事則當端拱 不妄動으로 손을 세우려 하지 않으며 일이 없을 때는 바깥에 단정히 손을 모으고 허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눈 모양을 단정히 한다는 것은 定其眼睫 視瞻當正 不可流眇邪視로 눈동자를 안정시켜 시선을 바르게 하며 흘려 보거나 훑쳐 보지 말 것, 입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리 모양을 조용히 한다는 것은 當整攝形氣 不可出噦咳等雜聲으로 形氣를 가다듬어 구역질을 하거나 트림을 하는 등의 잡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머리 모양을 곧게 한다는 것은 當正頭直身 不可傾回偏倚로 바깥에 머리를 바르게 하고 몸을 곧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 한다. 그리고 숨쉬는 모양을 엄숙히 한다는 것은 當調和鼻息 不可使有聲氣로 호흡을 고르게 하며 소리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서있는 모양을 너스럽게 한다는 것은 中立不倚儼然有德之氣像으로 가운데 서고 치우치지 않아서 儼然히 덕이 있는 기상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얼굴 모양을 장엄하게 한다는 것은 顏色整齊 無怠慢之氣로 얼굴 빛을 단정히 하여 태만한 기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 朝鮮時代 初學敎材로 사용되었다(丁淳睦, 1985)는 啓蒙篇에는 '進學益智 莫切於九思 所謂九思者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라 하여 몸과 마음을 收斂하고 학문에 나아가 지혜를 더하는 데는 九容과 九思가 절실하다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擊蒙要訣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밝게 볼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視無所蔽則明無不見으로, 사물을 볼 때 가리운 바가 없으며 밝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들을 때는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聽無所壅則聽無不聞으로, 들을 때 막힌 바가 없으면 총명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말한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容色和舒 無忿厲之氣로, 얼굴빛을 화하고 부드럽게 하여 화를 내거나 기진 기색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용모는 공손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一身儀形無 不端莊으로, 일신의 태도가 단정하고 씩씩한 것을 말하며, 말을 성실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一言之發無不忠信으로, 한마디 말이라도 忠信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일을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一事之作無不敬慎으로, 한 가지 일이라도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물을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有疑于心 必就先覺審問 不知不措로,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선각자에게 나아가 자세히 물어서 모르고는 그대로 두지 않

육에 관한 柳點淑(1987, 1991)의 연구에서는 九容은 童蒙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신체적 긴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잡념을 막고 心志를 바로 잡도록 한다고 보았다. 또한 禹英姬(1989)도 이와같이 敬身한다는 것이 단순히 身體의 修養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道德의 修養과 그것의 習慣化를 이루려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육내용의 실행이 바로 부모의 일차적 역할로 기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母性에 기대한 훈육내용은 男兒와 女兒로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표 2>의 ㉞와 ①은 여아에 대한 교육 내용이 나타났다. 즉, ㉞에서는 여자로서 명령에 고분고분하는 일, 청소, 길쌈, 옷짓기, 음식 만드는 일 등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고 그 아버지 된 사람은 때로 詩·書·圖·史를 가지고 설명·경계하는 일에 불과할 뿐이라 하였고, ①에서는 성품을 화복하고 평온하게 하고, 언어를 부드럽고 온순하게 하며, 길쌈, 옷짓기, 음식하기 등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자녀훈육 중에서 여아에 대한 교육을 주로 母性이 담당하였고, 그 주된 교육내용은 德·言·容·功의 四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增補山林經濟에 女有四行 一曰婦德 貞靜整齊動靜有法 二曰婦言 擇辭而說不厭於人 三曰婦容 盥洗塵穢服飾祥潔 四曰婦功 專心紡績潔齊酒食이라 되어 있어 ㉞와 ①은 이 四行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母性에 기대한 男兒의 교육은 ①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의 갓 날때부터 7·8세 될 때까지의 출입, 行步, 言笑, 起居, 衣복, 음식에 관한 일, 그리고 禮節, 조심(愼), 화복, 덕 배양 등의 일도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되어있어, 男兒가 7·8세 될 때까지의 기본 생활습관이나 행동거지 등 대부분 훈육은 특히 모성에게 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結 論

兒童訓育에 대한 父母의 社會認知는 문화적으로 선승된 父母役割概念 및 훈육지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士小節, 下學指南, 增補山林經濟, 內訓, 閨範選英 등의 朝鮮時代 敎訓書에 나타난 兒童訓育 관련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訓育知識 중에서 學習過程과 時期에 관한 概念을 보면, 학습은 일상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습이 된 상태란 교육내용이 안정된 행동습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시대에는 아동이 H常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人物과 事象은 아동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學習에는 決定的 時期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또한 훈육행동표현에 관해서는 분례행동이 발생한 즉시에 대처할 것, 훈육시 언어표현은 차분하면서 조리있게 하여 자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함과 동시에 과한 표현은 삼가할 것, 과한 체벌은 삼가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것 등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적절한 훈육을 못하여 자식이 不肖하게 되는 것을 모두 훈육주체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조선시대에 기대한 父性性은 威嚴, 義理 등을 갖추어 公明正大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恩惠롭고 人情있는, 즉 嚴과 愛를 병행시킨 화순한 기풍을 갖추어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父性에게 기대된 훈육내용으로는 자녀에게 차분함, 공격, 검소, 근면, 인내, 검소 등을 가르칠 것과 교만, 사치, 방탕, 게으름, 任意대로 함, 忿爭, 오만, 경솔한 말, 시끄러움, 도리에 어긋난 것, 邪된 말 등을 금지시킬 것을 들고 있다.

셋째, 조선시대에 기대된 母性性은 자녀교육에 있

야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 때에는 환난을 생각한다는 것은 有忿必懲以理自勝으로, 분이 나면 반드시 정개하여 이치로써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얻은 것을 의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臨財必明義利之辨 合義然後取之로, 재물을 대해서는 반드시 義와 利의 구분을 밝혀 義에 합한 뒤에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어서 의로움과 엄격한 일관성과 아울러 인자, 후덕, 寬裕, 사해, 溫良, 공손 등의 애정적인 면이었다. 이것은 父性에 대한 기대와 일면 유사한 듯하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 즉, 母性에 있어서는 자녀훈육에 엄격성이 있으면서도, 정서적 측면에서 자녀를 지지해줄 수 있는 특성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母性에 기대한 훈육내용에 있어서는 父性和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母性에게는女兒에 대한 교육이 주로 기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남아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7·8세가 될 때까지의 유년기 훈육이 주로 母性 역할로 기대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는 朝鮮時代의 敎訓書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 朝鮮時代 실제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가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에 있어서는 規範書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朝鮮時代 문헌과의 대조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다방면으로 더욱 보완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傳承의 過程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朝鮮 以前 時代에 관한 연구가 연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작업들에 이어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아동훈육에 관한 지식이 현재의 자녀교육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승되어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擊蒙要訣, 成百曉 譯註, 서울:傳統文化硏究會, 1992.
- 2) 啓蒙篇, 丁淳睦 編著, 韓國儒學教育資料集解(Ⅰ) 童蒙教育篇, 서울:학문당, 1982.
- 3) 閨範選英, 瓶窩全書 卷1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 4) 內訓, 韓國學文獻硏究所, 서울:亞細亞文化社.
- 5) 士小節, 靑莊館全書 卷27-31, 崔理煥 編著, 古活字本.(民族文化推進會 譯, 國譯靑莊館全書 VI, 서울:민족문화추진회)
- 6) 增補山林經濟, 亞細亞文化社影印本.(이순형·조희급·고성혜·이은희 譯, 서울:정민사)
- 7) 下學指南, 順庵全書 Ⅱ, 驢江出版社刊行.(李采求 譯, 대전:신성문화사)
- 8) 金泳燦, 生活·文化·教育, 서울:교육과학사, 1982.
- 9) 金玉姬, 朝鮮朝社會의 女四書를 중심한 女性敎訓書의 內容分析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10) 金忠烈, 中國哲學散稿 I, Ⅱ, 서울:온누리, 1988.
- 11) 孫直銖, 朝鮮時代 女性敎育硏究,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2.
- 12) ———, 士小節에 나타난 傳統 家庭敎育, 한국정신문화원 연구논총 93-18, 韓國人의 傳統家庭敎育思想, 47-130, 1993.
- 13) 愼良宰, 高麗時代 兒童養育 硏究 — 高麗史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2, 1994a, 149-162.
- 14) ———,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난 兒童期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32, 1994b.
- 15) 禹英姬,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養育 — 童蒙先習, 擊蒙要訣, 士小節, 顯菴家訓을 중심으로 —,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16) 柳點淑, 士小節에 나타난 兒童敎育法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141-152, 1987.
- 17) ———, 朝鮮後期 童蒙敎材의 內容硏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 18) ———, 朝鮮時代 童蒙敎育의 方法的 原理, 아동학회, 13, 1992, 113-128.
- 19) 李貞德·宋洵, 小學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敎育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993, 157-168.
- 20) 丁淳睦, 朝鮮時代의 敎育名著巡禮, 서울:배영사, 1985.
- 21) 池英淑, 茶山의 家庭敎育에 대한 現代의 考察, 성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9, 1989, 275-295.
- 22) 馮友蘭, 中國哲學史, 鄭仁在 譯, 서울:형설출판사, 1977.
- 23) 洪담야기, 聖學輯要에 나타난 子女敎育觀, 한국가정관리학회 12, 1994, 200-208.
- 24) D'Alessio, M, Social representation of childhood : an implicit theory Development, In G. Duveen &

- B. Lloyd, ed., *Social represent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25) D'Andrade, R.G. The cultural part of cognition, *Cognitive Science* 5, 1981, 179-195.
- 26) Dix, T.H., D.N. Ruble & R.J. Zambardo,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ment*, 60, 1989, 1373-1391.
- 27) Fiske, S. & S.E. Taylor, *Social cognition*, CA : Addison-Wesley Pub. Company, 1984.
- 28) Goodnow, J., Change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5.
- 29) -----,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1988, 286-320.
- 30) Harkness, s., C.M. Super, & C.H. Keefer, Learning to be an american parent : How cultural models gain directive force, In R. D'Andrade and C. Straus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31) Hoden, G.W. & L.A. Edward,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 instrument,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uetin*, 106, 1989, 29-58.
- 32) Kochanska, G., L. Knezyński, & M. Radke-Yarrow,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1989, 441-456.
- 33) Kochanska, G., Maternal beliefs as long term predictors of mother 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61, 1990, 1934-1943.
- 34) Maccoby, E.E.,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al change, *Child Development*, 55, 1984, 317-328.
- 35) Miller, S.A.,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1988, 259-285.
- 36) Mills, R.S. & K.H. Rubin,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1, 1990, 138-151.
- 37) Ninio, A., The naive theory of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1979, 976-980.
- 38) -----, The effects of cultural background, sex, and parenthood on beliefs about the timetable of cognitive development in in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34, 1988, 369-388.
- 39) Samaroff, A.J. & L.A. Fail,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5.
- 40) Shweder, R.A. & E.J. Bourne, Does the conception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A. Shweder & R.A. LeVine(eds.), *Culture Theory :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41) Sigel, I.V.,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5.
- 42) Simon, R.L., J. Beaman, R.D. Conger, & W. Chao,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91-106.